Collection @ chosun

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8358

Collection @ chosun

2009년 8월

석사학위 논문

馬建忠의 均勢論과 中國 近代外交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장 원 원

Collection @ chosun

馬建忠의 均勢論과 中國 近代外交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장 원 원

Collection @ chosun

馬建忠의 均勢論과 中國 近代外交

Ma jian-zhong's Balance of Power Theory and China's Modern Diplomacy

2009년 8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장 원 원

Collection @ chosun

馬建忠의 均勢論과 中國 近代外交

지도교수 최 진 규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장 원 원

Collection @ chosun

장원원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2009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chosun

목 차

ABSTRACT ····· i

1. 머리말 ····· 1

2. 마건충의 생애와 시대 ····· 4

1) 19세기 후반 중국의 지리관념과 외교전략 ····· 4
2) 마건충의 유학과 정치활동 ····· 8

3. 마건충의 균세외교이론 ····· 14

1) 균세론 ····· 14
2) 균세외교이론의 제기 ····· 16

4. 중국 근대외교와 마건충의 역할 ····· 20

1) 마건충의 균세외교 응용 ····· 20
2) 외교인재의 육성 선발 ····· 24

5. 맺음말 ····· 26

參考文獻 ····· 27

Collection @ chosun

ABSTRACT

Ma jian-zhong's Balance of Power Theory and China's Modern Diplomacy

By ZHANG YUAN-YUAN
Advisor: Prof. Choi Jin Kyu Ph.D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Laty-Qing Dynasty is regarded as a huge change which never happened in china 3000 years. When the colonists came to the east ,the west conflicted with China continuously. How to deal with the western country had been a urgent assignment to Qing Dynasty. The diplomacy was considered as a way which could save the nation in that time.

Ma jian-zhong is a famous person in Chinese modern history. he actively assimilated, introduced and imparted the recent Western diplomatic notion, the main content being international law history, the notion of national sovereignty, theory of even spheres of power and the training and systematization of the specialized diplomatic talents. He applied them into the diplomatic practices,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traditional Chinese diplomacy, in the aspects of thought and action, towards the Chinese diplomacy in the modern sense.

Collection @ chosun

Balance of power idea is a kind of very important diplomacy theory for the mordern western countries to deal with the international relations. Balance of power idea has made great influence to Chinese world outlook since it has spread to China during the period of foreign affairs, which is exactly in the 60s of 19 century. China changed the world center ideology that was popular in the past, and gradually considers itself as one of the independent country of the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So China begins to handle foreign affairs with equality ideology.

Ma jian-zhong's Balance diplomacy is not very efficient because of the decline of national power, the complicated situ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affairs and the balance tactics are not always applied correctly. However, objectively, the balance diplomacy fits in with the needs of the society. It is the best choice for a weak nation to maintain its national benefits. Besides, the balance diplomacy also takes great effects on the whole modern China positively.

Collection @ chosun

Ⅰ. 머리말

馬建忠(1845-1900年)은 江蘇省 丹陽人이며, 字는 眉叔, 譜名은 志民, 學名은 斯才이다. 幼名은 欽良, 單名은 乾이다. 그는 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가족은 천주교를 신봉하였다. 유년시대에는 천주교회가 창설한 徐彙公學에서 학습하였고, 청년시대에는 李鴻章의 幕俯에 투신하였는데 그의 추천으로 1877년에서 1880년까지 프랑스에 유학한 까닭에 풍부한 서학의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 더욱이 외교방면에서는 청조 관료 가운데 드문 인재였다.

마건충에 대한 학술연구는 1950년대로부터 개시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다. 마건충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의 생애, 역사적 위상, 경제 · 외교사상, 海防思想 등의 방면에 집중되었다. 본 연구는 先學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하여 아래에 서술할 문제를 중심으로 진일보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1. 초기의 維新思想家이며 최초로 외국에서 근대 국제공법과 외교이론을 공부한 인재였던 마건충은 중국이 어떻게 하여 부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갖가지로 모색하였고, 그의 많은 견해는 오늘날의 개혁개방 시대에도 여전히 일정 부분 모범이 되는 의의를 갖는다. 그는 외교사상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셈이다. 본고는 마건충의 외교사상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그의 均勢 외교론과 외교실천에 대한 분석에 주력하고자 한다. 그의 사상과 행동을 중국 백년의 역사 흐름 가운데서 비추어보고, 그가 중국 근대외교에 끼친 심대한 영향을 고찰하면서 진취적인 사상가였던 그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하고자 한다.

2. 馬建忠은 李鴻章의 幕僚가 되었으나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에 대한 그의 인식은 이홍장을 훨씬 뛰어 넘었다. 이홍장은 중국의 외교, 경제, 군사문제를 처리하면서 자주 마건충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마건충은 이홍장의 외교문제 처리에 협조하면서 자못 뛰어난 재간을 발휘하였다. 輪船招商局 등의 기업을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이홍장은 청 말기 외교에 있

Collection @ chosun

어서 중요한 인물이었고, 마건충은 그의 친근한 신뢰자이고 막료였기 때문에 청 말기 외교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 인물 가운데 한명이다. 외교 관리였던 마건충의 외교사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주로 외교기구와 외교관제 완비의 문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청 말기 외교 근대화의 험난했던 여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간의 왕래가 갈수록 긴밀해지는 오늘날 외교제도는 여전히 개선되고 완비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다. 청 말기 외교의 근대화를 연구하게 되면 그 역사를 귀감으로 삼게 될 것이니,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또한 더욱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

마건충의 외교사상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래 더욱 중시되었다. 이들 여러 성과들을 비교 연구하여 이 시기 학설들의 특징을 파악해보겠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마건충의 외교사상에 대한 연구는 심화되고 있다.

王雙은 沿江(양자강 연안)의 三大家 - 王韜(江蘇省 吳縣人), 馬建忠(江蘇省 丹徒人), 薛福成(江蘇省 無錫人)의 경제사상에 대해 비교한 바 있다. 그는 삼인이 모두 가까운 공통점이 있으며, 서로 계승하며 발전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였다. 王韜는 商本思想을 최초로 주장한 자이다. 그는 민족자본주의 경제가 크게 발전되어야 전체 사회를 지탱할 수 있으며 더욱 부유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건충은 왕도의 商本思想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특별히 외국무역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외국무역이 국가 재부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薛福成의 商本思想은 산업투자와 민족공업생산을 발전시키는 일에 보다 더 중점을 두었다. 沿江 三大家는 모두 서방 선진 국가를 모범으로 삼아 중국 전통의 경제관념을 철저히 변화시켜야 할 것을 주창하여서, 중국 민족의 공・상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1]

兪政의 논문은 비록 「論馬建忠的經濟思想」을 제목으로 하였으나 마건충의 사상을 분석하면서 동시에 마건충과 嚴復의 경제사상을 비교하였다. 그는 마건충과 엄복이 모두 근대 중국이 서방을 향해 추구하였던 致富之路(經濟學說)의 진보사상가였다고 보았다. 마건충은 중상주의를 추구하였으나 엄복은 경제자유주의를 추구하였다고 하였다. 그들 사이의 중대한 차이는 이를테면

1) 王雙 「近代沿江三家的商本思想--王韜, 馬建忠, 薛福成經濟思想探析」, 『河南師範大學學報(哲社版)』, 1995-3。

Collection @ chosun

金銀爲富論을 찬성할 것인가 重征進口稅를 찬성할 것인 자유경쟁을 제창할 것인가에 있었는데 사실은 바로 중상주의와 경제자유주의로 분기되는 것이었다.2)

譚群玉과 曹又文이 같이 쓴 글은 洪仁玕과 마건충의 維新思想을 비교하였다. 홍인간과 마건충은 함께 반봉건 반식민지의 사회배경 하에 처해 있으면서 반침략과 부국강병의 서로 같은 사명을 이루고자 한 면에서 維新思想과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둘은 처했던 구체적 시대환경과 신분이 달랐고 그들의 유신사상에도 각각 특색이 있었는데 중요한 세 가지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空想性과 可能性의 차이이다. 洪仁玕의 사상은 早熟과 空想의 색채가 있는데 비해 마건충의 사상은 실제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론상의 가능성은 당시의 아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 현실에 처해 있었다. 둘째 角度와 程度의 면에서 다른 점이다. 홍인간의 유신사상은 주로 광대한 관점의 角度에서 신형의 국가 건립에 대한 총체적 구상을 제안하여 전면적이지 않았던 것인데 비해서 馬建忠은 미세한 관점의 각도에서 철도의 부설 외채를 빌리는 일 등의 실제문제에 대해 직접 건의하여 구체적이고 精深한 면이 있었다. 셋째 중점과 표현방식의 차이이다. 홍인간의 維新經濟思想은 內向型의 발전 즉 국내 자본주의 경제에 중점을 두었지만 마건충은 대외무역 즉 외향형의 경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목적도 주로 대외경쟁에 있었다. 3)

담군옥은 마건충이 참여한 몇 가지 주요 외교활동에 대해 총평하기를이홍장의 친근한 신뢰자이며 막료로서 마건충은 晩晴의 涉外活動 중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나 실제의 효과는 성패가 반반이라고 하였다.

그가 시행한 鴉片增稅와 專賣 중국과 프랑스간의 교섭 및 暫售招商局船産 米建威計劃 등의 외교활동이 갖가지 쟁의를 일으킨 것은 사회 변동기에 신지식의 선각자와 수구 사대부 사이의 관념에 충돌이 있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관점은 마건충의 외교활동에 대한 이전의 부정적 혹은 회의적 견해를 돌파하여 비교적 객관적 시각에서 마건충이 특정한 역사시기에 발휘한 적극적 역할을 평가하고 있다. 4)

---

2) 俞政 「論馬建忠的經濟思想」, 『蘇州大學學報(哲社版)』, 1996-3。
3) 譚群玉和曹又文 「洪仁幹與馬建忠的維新思想比較」, 『曆史檔案>』, 1998-4。

Collection @ chosun

蔣文野도 마건충이 종사한 외교활동에 대한 초기의 연구자들의 평가를 회고하면서 이전의 연구 가운데 그가 언어학 연구에서 이룬 공헌과 경제외교사상상의 진보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가 있으나 그의 외교활동에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漢奸의 陰影이 영향 받고 있다고 하였다. 등문야는 조선문제에 대한 마건충의 정확한 처리가 조선 내란의 신속한 해결에 공헌하였으며, 조선사회의 안정과 경제발전에도 공헌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마건충과 미국 旗昌洋行의 售産換旗는 중·프 전쟁 기간 동안 輪船의 정상 운행과 전쟁물자의 조달을 보증한 것으로 그 和議의 성공으로 招商局의 재산을 때맞추어 회수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마건충은 우수한 외교 인재였다고 하였다.[5]본고는 이러한 시각에서 마건충의 외교활동과 사상 및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마건충의 생애와 시대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한 건륭황제 이후 청조 시대, 이 시대와 더불어 서양자본주의는 급속히 중국 내에 침투해 들어왔다. 서양 국가들의 급속한 세력팽창과는 반대로, 두 번에 걸친 아편전쟁은 통치계급을 포함한 중화민족 전체에게 커다란 굴욕감을 안겨주었으며, 중국의 사회 모순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결국 국력은 급속히 쇠락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조류의 확장에 따라, 기존의 중국이 고수했었던 전통적인 외교체제에도 근대화의 기류에 맞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1. 19세기 후반 중국의 지리관념과 외교전략

1) 지리 관념의 전환

한 국가의 대외적인 외교정책에서 지리적인 요소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4) 譚群玉 「馬建忠的外交活動」, 『中山大學學報論叢(哲社版)』, 2000-3。
5) 蔣文野 「馬建忠生平專辯二題」, 鎮江師專學報(社科版)』, 2001-1。

Collection @ chosun

된다. 대륙 간의 지리정보가 발전됨에 따라 중세 이후 중국에서도 외교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서양(西洋)이란 용어는 명대 洪武 3년(1370) 중국 正史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쟈바(Java), 수마트라(Sumatura), 보르네오(Borneo) 등의 지역을 지칭한 것 이였으며, 이후 鄭和에 의해 남양 방면의 대원정과 경략이 이루어진 永樂時代에 들어서 서양의 범위가 洪武 때보다 보다 확대되어 동남아시아와 남인도 · 실론(Ceylon)에서 아라비아해 연안에 이르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1617년 張燮의 「東西洋考」에서는 南洋의 여러 지역을 보르네오를 중심으로 양분하여 東洋과 西洋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678년에 이루어진 顧祖禹의 「讀史方紀要」에 의하면 東洋은 필리핀이 중심이고 西洋은 태국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明代에 사용하던 西洋이란 용어는 현재의 개념과 달리 中國南岸에서 南洋내지는 南洋의 西方을 지칭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신항로가 발견되고 서양의 상인들과 선교사들이 끊이지 않고 중국에 오면서 동서 문화의 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된 명말 청초에 西洋의 제수잇파 선교사들에 의해 西洋의 지리학이 중국에 전파되면서부터 중국인들의 공간개념과 세계지리지식이 크게 바뀌었으며 이 무렵부터 西洋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지역을 지칭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인의 시야가 그만큼 확대되었기 때문에 세계에 있어서 중국의 위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해되었다.

고대로부터 중국인들은 유교경전에 근거해서 중국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을 天朝上國이라 칭하였고 이에 반해 주변국들을 蠻荒이라 생각하였다. 詩經중의 普天之下 莫非王土(하늘 아래는 모두 중국 땅이다)라는 구절은 실제 당시 중국인들의 세계관 즉 天下는 오랜 기간 동안 동아시아 지역의 중국 중심의 세계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중국의 패권주의와 중화문명에 대한 우월 의식을 심어주고 지속되게 하였다.

이러한 漢人들의 中華思想은 여진족으로서 入關한 청 왕조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었으며 天朝라 일컫는 외교체제를 그대로 발전시켰다. 즉 天朝라 함은 중국을 나타내는 天朝上國주변 속국을 뜻하는 藩屬國 인접 상대국을 化外蠻夷之邦이라 일컬으며 서로의 관계를 형성시켰으며 이후 멀리 떨어져 생소한

Collection @ chosun

西方의 여러 나라들도 역시 化外蠻夷之邦의 관념 구조 속에 포함시켜 간주하고 있었다. 유교문화의 우월성과 西方에 뒤쳐지지 않는 경제력에 기반하여 淸朝는 天下의 개념을 통해 주변을 四夷로서 대하였으며 실제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전까지는 淸國의 경제생산성이 서방의 그것을 초과할 정도였다.

중국인들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華夷의식을 굳게 지니고 있었다. 淸代 중국의 西洋에 대한 인식은 前述했듯이 동남아 일대에서 무역을 하는 상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西洋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면도 있었다. 이와 같은 동서양간의 교류는 명말·청초에 잠깐 진전된 바 있었으나 雍正시대 이래 천주교에 대한 禁敎를 단행하여 선교사들의 왕래가 단절되면서 서양 문화의 수용이 크게 제한되고 늦추어졌다. 더욱이 乾嘉시대에 활발해진 고증학 등의 학술 연구도 중국 고전의 고증과 훈고에만 빠져 서양을 더 이상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外界와 단절된 중국 특유의 중국적인 세계관만 더욱 증폭시켰다.

실제 중국문화와 서양문화의 교류를 중단시킨 청의 폐쇄정책으로 인해 특히 官에서는 西洋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으므로 관에서 선정한 서양에 대한 저술이 아편전쟁 이전까지만 하여도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一例로 1793년과 1816년에 영국에서 파견한 史臣(使臣)을 朝貢史臣(使臣)으로 취급한 것은 당시 서양에 대한 인식이 매우 형편없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민간에서는 서양의 사정을 소개하는 王大海의 「海島逸志」(1806), 楊炳南의 「海錄」(1820) 등의 서적 등이 출간되어 서양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道光時代 중엽에 이르기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의 서양에 대한 인식은 유치하기 그지없었다. 단지 표면적인 관찰을 통하여 서양인들을 보았기 때문에 서양인들에 대해여 오히려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1834년(道光 14년) 영국의 나피엘(Lord Napier)이 무역감독관으로 중국에 온 다음 兩廣總督과 충돌하면서부터 사정이 점차 급박해져서 西洋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청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모두 패한 후에야 그때까지의 중국의 전통적 세계관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비로소 서양에 대한 바른 인식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지하게 되었다.

2) 청 정부 외교의 변화

dCollection @ chosun

중국의 대외정책은 스스로가 諸夷에 비해 자국이 지녀온 역사와 문화가 우월하다는 전제하에서 패권정책을 유지하였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 간의 진정한 외교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乾嘉時代까지만해도 淸은 朝貢制度를 고수하면서 典禮 문제와 같은 사소한 것들에만 주의하였을 뿐 서방제국들에 대한 국력이나 사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체로 중국이 서양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편전쟁의 和議交涉이 이루어지던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외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분쟁 해결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사실 중국과 서양의 만남과 충돌은 대부분 경제와 무역의 문제가 그 根因이었다. 따라서 당시 중국과 서양과의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것은 경제와 무역 관계일 것이다.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어서 중국인들의 대외관계 처리는 중국과 서양 사이의 왕래를 상업성 이외의 다른 것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문을 굳게 닫고 거절하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아편전쟁 초기에 엘리오트(George Elliot)가 배상 외에 요구하였던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섬을 영국에게 주어 영국인들로 하여금 무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단순히 아편의 처리만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영국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은 아편전쟁이 끝나 가려는 무렵인, 즉 和議가 이루어지고 있는 1842년까지도 마찬가지였다. 이때 중국측 대표인 耆英이 만약에 앞으로 和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마땅히 그 우두머리와 직접 만나서 대국을 정하겠다고 道光帝에게 상소하니까 道光帝는 이미 의견이 합의가 되었다면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영국의 관리와 직접 만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던 중국의 태도는 그 후로도 십여 년 동안 변함이 없었으며 당시 관료들은 철저하게 서양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청조 지도층의 행태는 중국인들의 대외인식과 현실 대처 능력을 뒤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른바「夷務」즉 對 서양 정책 업무는 이제 중국의 중요한 政事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夷務」는 당시 朝野의 인사들이 對外交涉往來의 뜻으로서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

Collection @ chosun

또한 夷務의 대상은 夷人들이었으므로 여러 夷人을 막는 制夷의 방법이 제시되고 의론되었다. 대체로 대외인식이 夷務에서 洋務로 바뀌어 가는 시기라 할 수 있는 1840년대부터 60년대로 들어가기까지 제기된 각종의 制夷策은 以民制夷, 以漢奸制夷, 以商制夷, 以夷制夷로 나눌 수 있다.

2. 마건충의 유학과 정치활동

마건충은 중국근대의 격변의 시기에서 살았었다. 그 시기는 전통과 현대의 전환기였다. 그는 아편전쟁 후 5년(1845年)에 태어나서 무술정변 후 2년(1900년)에 사망하였다. 마건충은 천주교를 신봉하는 상인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교당에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도가 되었으며 세례명을 瑪弟라 하였다. 천주교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마건충은 유년시절부터 종교적 분위기가 짙은 환경 속에서 자랐으며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 마건충이 유년시절에 받은 교육의 정황은 그가『適可齋記言記行』의 서문 속에서 상세하게 自述[6]한 내용에 보인다.

마건충은 소년시기를 徐彙公學에서 보냈는데 이곳에서의 학습은 마건충의 지식구조와 사상관념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천주교 야소회는 본래 학교를 설립하여 유명해졌는데 그곳에서 설립한 학교는 일반적으로 公學으로 불리어졌다. 서휘공학은 바로 耶蘇會가 상해에 설립한 비교적 이른 시기의 학교였다. 마건충은 전 가족이 전란으로 인해 상해로 건너간 후 서휘공학에 입학했었다. 그 곳에서 마건충은 교리와 더불어 중국의 전통적인 유학과정을 학습했다. 이 시기에 학교는 줄곧 뚜렷하게 공학의 학생을 격려하여 천주교 교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동시에 과거를 통해 관학생이 되게 하거

6) 馬建忠, 『適可齋記言記行』「序」,
餘生於道光五口互市後之第三年。甫就塾識字, 則鬢逆陷大江南北。隨家轉徒, 凡十八遷而抵上海, 方執筆學舉子業, 而蘇淞又陷, 未幾, 而又有庚申之變, 餘乃深惟鬢逆蔓延半天下, 而其殘忍殺勢同流寇,僅足爲目前患。獨洋人以師舟於數萬裏外, 載一旅之師北上, 款成, 全師屯上海, 民與安焉, 若罔知有變故也者。而我朝士夫彼此莫大之恥, 專務掩匿覆盡, 以絶口不談海外事爲高, 直無有深求其得失之故, 以冀得一當者。然則他日彼族爲禍之烈, 不蔡可知矣。於是決然舍其所學而學所謂洋務者, 始求上海所譯書觀, 未足饜意, 遂乃學其今文字與其古文字詞, 以進求其格物致知之功與所以馴至於政治之要, 窮原意委, 慨然有得於心。

Collection @ chosun

나, 혹은 벼슬길에 들어서게 하였다.

마건충의 유년 시대 목표 중의 하나는 과거 합격자 명단에 그 이름을 올리는 것이었지만 그는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그의 형과 달리 얼마 후 과거의 꿈을 버렸다. 그는 서양의 학문 속에서 유용한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민족의 진흥과 국가의 부강을 위한 처방은, 더 이상 낙후되고 부패한 八股文을 익히는데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리하여 그는 이전에 배운 것들을 버리고 經世致用의 학문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고 이후 근대의 저명한 계몽사상가로서 활약하게 되었다.

1874년 마건충은 야소회를 떠나서 이홍장의 막하에 투신했다. 1877년 초 이홍장의 막하에서 首位의 자리를 차지하고 丁日昌 吳贊誠 등과 토론하여 결정한『選派船政生徒出洋肄業章程』을 조정에 상주하여 흔쾌히 비준을 얻었다. 상주문에서 이홍장은 특별히 마건충을 侍郎中으로 추천하고 船政學堂 학생을 따라 유럽에 유학을 가서 깊이 연구하게 하였는데 이때 마건충은 수행원으로 학생 14명 견습공 4명을 조직하였다. [7] 『中國天主敎史人物傳』에 의하면 1877년 제 1차 福州 船廠 학생이 떠났는데 마건충은 이홍장이 파견하였고 수행원은 모두 프랑스 통역을 동행했다.[8] 이리하여 청 말기 해군학당 제 일진의 유학생들이 멀리 유럽에 유학했었는데 마건충 또한 그 중 한명이었다.

마건충은 1877년 파리에 도착한 후 동행한 유학생인 陳季同과 함께 우선 프랑스의 교사를 초빙하여 각국의 律例 및 외교방법을 배웠다. 그 후에 마건충은 파리의 私立政治學院에 들어갔다. 사립정치학원은 1872년에 창립했었는데 전문적인 외교관과 행정관리를 육성하는 2년제 사립학교로 1931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프랑스 중학졸업고사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허용했다. 마건충이 이 정치학원에서 수학한 기간은 2년이다. 이어 프랑스 중학졸업고사를 통과하고 프랑스 법과대학에 입학하였고 1879년에 정식으로 졸업하였다. 요컨대 프랑스에서 유학한 2년 동안에 파리의 사립정치학원과 법과대학에서 공부했는데 이 두 곳에서 함께 수학하여 정식으로 졸업한 것이다. 또한 주 프랑스 청 정부 대사관 통역을 겸임했으며 이로 인해 1880년에

7)「閩廠學生出洋學習折」, 唐小軒主編:『李鴻章全集』(2), 長春時代文藝出版社, 1998年出版, 第1218頁。

8) 方豪, 『中國天主教史人物傳』(下) 北京中華書局, 1973年版, 第300頁。

dCollection @ chosun

이르러서야 귀국할 수 있었다. 그가 프랑스에서 거주한 기간은 모두 3년이지만 교육을 받은 기간은 단지 2년뿐이다.[9]

마건충은 파리의 사립정치학교에서 각각 외교분야와 행정분야의 과정을 선택하여 배웠다. 이후 파리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학습했으며, 1879년에 정식으로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법학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0]프랑스의 유명한 고등학부로 여겨지는 파리정치학원의 학습방법은 매우 융통성이 있었는데, 강론을 중시했으며 토론도 하였다. 학교 당국은 그를 위해 특별히 영어와 독어에 능통한 스승을 파견하여 전문적으로 지도했다. 매년 스승에게 직접 시험을 보게 했는데, 첫 해는 문답이 주가 되었고, 둘째 해는 논설 시험이 주가 되었는데, 우등의 성적을 얻으면 증명서를 주었다.[11]

여기에서 학습한 내용이 마건충의 초기 維新改良思想의 바탕이 되었다. 그 밖에 경제, 외교 등의 사상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마건충이 개량사상에 대해 기술한「上李伯相言出洋工課書」·「巴黎複友人書」·「鐵道論」·「借債以開鐵道說」등의 글들은 대부분 프랑스 유학기간에 이루어졌다.

그 글들에서 그는 외교를 돈독히 하고 외교학당을 설립하여 외교인재를 육성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지방세를 폐지하고 서양물품의 수입세를 증가시킬 것 외자를 차용하여 철로를 수축할 것 상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할 것 등의 경제사상을 명백히 주장하였다.

마건충은 프랑스에서 유학하는 동안 刻苦硏磨하여 우수한 성적을 취득했다. 또한 프랑스 상주 공사인 郭嵩濤와 曾紀澤의 프랑스어 통역을 맡았으며 여러 중요한 외교활동에도 참가하였다. 3년간 학업 상에 매우 큰 진전을 얻었을

---

9) 權秀赫, 「馬建忠留法史實辨誤二則」, 『江蘇社會科學』, 2004-1。

10)「上李伯相言出洋工課書」, 鄭大華點校:『采西學議--馮桂芬、馬建忠集』, 沈陽, 遼寧人民出版社社, 1994年版, 第157頁。

11) 鍾叔河主編, 郭嵩濤:『倫敦與巴黎日記』, 長沙, 嶽麓書社, 1984年版, 第705-707頁

一, 臣專爲通聲氣、采虛實, 知彼知我。並舉了兩個例子, 俄土之戰與普法戰爭來說明知彼知己的重要。外交使臣應能在宴會應酬之間, 無意中探國人之口氣, 察國中之政治。二, 比利時初立國, 法人議合二國之關並而爲一, 一納進口稅, 可以通行兩國之地, 不再征收, 按月分派。三, 日本重修和約, 增改二事:一詳定稅則;一禁止外國 商船在日本口岸販運。而中國竟以通商口岸視同外地。四, 論英、法稅則, 曆來本重, 甚且有值百抽百之數, 禁貨亦多。近年英國立約, 減定稅則, 商貨大暢。英、法制造之廠, 因之日興。根據具體情況, 進口貨稅有輕有重。五, 意、法之文出自拉丁;英則半由拉丁;奧、普則盡由撒克桑。

Collection @ chosun

뿐만 아니라 외교 수행능력에도 매우 큰 경험을 쌓았다. 실제로 당시 공사관의 통역으로 이루어진 여러 중요한 외교활동의 성과는 상당부분 마건충의 역할에 의한 것이다. 1878년 5월 6일 곽승도가 겸임상주대사의 명을 받고 프랑스의 총통 맥마혼(MacMahon)에게 국서를 봉정할 때에도 마건충과 德明 등이 수행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밖에도 그는 여러 외교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그의 프랑스어 실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곽숭도는 마건충의 재능을 매우 중시하여 항상 그로 하여금 각종 외교활동에 참여하게 했다. 마건충의 견식을 키우고 외교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곽숭도는 때때로 그로 하여금 여러 중요한 회의를 대리하여 출석하게 했다. 곽승도는 마건충의 학습 업무와 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로 배려해주었다. 그는 자주 마건충을 찾아가서 학당에서의 학습 사정을 물어보고 자신의 일기 속에 그에 대해 기록하기도 하였다.

1879년 정월 곽승도는 청 정부의 명령에 의해 주영 주불공사의 직무에서 해임되었고 증기택이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증기택은 프랑스에 도착한 후 마건충을 대사관의 통역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 프랑스 유학 기간에 마건충은 영 프 등의 국외 인사와의 여러 접촉을 통해 업무능력과 서구사상에 대한 인식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었다. 그는 공부한 책 속의 지식을 탄력적으로 실천하면서 쌓아진 경험과 지식을 종합하여 상술한 많은 개량사상의 글들을 작성할 수 있었다.

마건충은 학업을 이수한 후 프랑스 사회 내에 깊이 침투하여 서방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함양하였다. 그는 파리에서의 갖가지 전람회에 참가하였으며 공장 교외지역을 시찰하고 여러 도서를 구입하였다. 그는 또한 인쇄소 전화국 직방소 윤선 군영 프랑스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였다. 특히 1878년 5월 1일부터 11일까지 파리에서 거행된 만국박람회는 마건충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는 이홍장에게 올린「上李伯相言出洋工課書」에서 프랑스 박람회의 목적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12] 그의 프랑스 박람회에

12)「上李伯相言出洋工課書」, 鄭大華點校:『采西學議--馮桂芬、馬建忠集』, 沈陽, 遼寧人民出版社社, 1994年版, 第158頁。
然此不過誇陳設之精, 供遊觀之樂, 以奢靡相矜而已, 豈開會之本意哉!蓋法人之設此會, 意不在炫奇而在鋪張。蓋法戰敗賠款後幾難復振, 近則極力講富強, 特設此會以誇富於外人。

Collection @ chosun

대한 분석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1870년 보불전쟁으로 프랑스는 큰 국가적 손실을 입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 8년 후에 프랑스는 만국박람회를 개최하였다. 그 목적은 전쟁을 겪은 후 쇠잔해진 국력을 진작시켜 대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프랑스에서의 유학경력은 마건충의 일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국내에 있을 때 서방의 선진기술을 배운다면 국가의 부강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프랑스에 도착한 이후 봉건중국과 근대서방의 거대한 차이를 몸소 실감하였다. 프랑스 유학을 통하여 그의 정치 외교 이론은 크게 향상되었고 외교수행능력도 매우 숙련되었다.

광서 6년 마건충은 학업과 외교활동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이홍장은 그의 어학능력 및 양무에 능숙함을 인정하여 청 조정에 특별히 상주하여 총리아문으로 보내어 임용후보로 등록하고, 출사하여 업무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승낙을 얻지 못하자 이홍장은 할 수 없이 그를 天津 수군영의 업무와 해군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해군은 바로 이홍장이 정성을 들여 기획한 국가의 大政이었다.

광서 7년 이홍장은 마건충에게 특별히 명령하여 독일장군 하네켄(Major von Hanneken)을 따라 함대를 타고 여순포대를 순시하고 해안사무를 기획하게 했다. 같은 해 이홍장은 그의 외교 수완을 신임하여 홍콩 싱가포르 인도 캘커타 등 각지로 나아가 아편판매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마건충은 또한 캘커타와 영인도 정부로 가서 아편판매문제를 담판했으며 암거래의 단절 중과세와 아편의 엄금에 대해 영연방의 동의를 얻었다.

광서 8년 봄과 여름 그는 이홍장의 명령을 받들고 조선과 미국의 조약에 참여하였으며 그의 외교 수완으로 조선은 미국과의 조약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미국의 조약 방식에 의거해 영·프·독·러 등 여러 나라와의 통상조약을 성립시켜서 열강의 조선에 대한 야심을 해소시켰다. 그는 조선과 러시아가 서로 인접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러시아의 야심을 끊기 위해 조선정부와 러시아정부에 요구하여 국경획정사무를 담판하게 하였다. 또한 對 중동 통상의 이익과 폐단을 자문했다. 같은 해 6월 조선에서 임오군란이 발생했는데 이홍장은 그와 복양 수군제독 정여창에게 명령하여 군함을

dCollection @ chosun

이끌고 조선으로 가서 관망하게 하였다. 그가 건의한대로 청 조정은 조선에 병력을 증강하여 임오군란을 평정하고 대원군을 천진으로 보내 감금하였다. 조선에 있는 기간에 부단하게 일본과 교섭하여 마침내 조선과 일본사신 花房義質이 조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조선의 국내외의 위기가 잠정적으로 해소되었다. 이홍장은 청 정부에 특별히 주청하여 마건충에게 상을 내리게 하고 海關道에 임용후보로 등록하게 했는데 이부는 임용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승낙하지 않았다.

광서 10년, 이홍장은 마건충에게 명하여 會辦으로서 招商局을 개혁하게 했는데 당시 초상국은 거의 마건충에 의해 장악되었다. 같은 해에 중·프 전쟁이 일어나 프랑스 함대가 장강으로 진격하였을 때, 그는 상인의 상선들이 프랑스군의 포획을 면하게 하려고, 특별히 미국의 상인 旗昌行(Russel & Co)과 상의하여 상선을 은가 525만 냥에 그 공사에 팔았다. 쌍방은 비밀협정을 조인했는데 매각이라 하였지만 실제로는 잠시 빌려준 것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중국에서 되찾았다. 마건충이 이와 같이 한 까닭은 바로 함풍 팔년(1858년)의 중·미의 천진조약 제 26조에서 정한 것에 근거하며 중국과 타국이 전쟁할 때 미국선박은 자유롭게 항구로 출입하여 통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3]초상국의 상선은 미국 국기를 걸고 프랑스의 봉쇄를 돌파하여 영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중국에 이익을 주었다. 그리고 긴박한 상황에서 물건을 다른 국가에 주면 적어도 6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미국양행은 그렇지 않아서 그 거래가 즉각 효과를 거두었다. 마건충은 이에 근거해서 초상국의 상선을 보호했으며 그의 조치에도 결코 부당한 점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오히려 그는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홍장은 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였고 모든 초상국의 선박은 원래 旗昌行에서 구매한 것인데 지금은 싼값으로 그 공사에 팔아서 손해가 났으며 회수 과정에서 여러 번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마건충은 끝내 초상국 총판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다만 聖仙會의 밑에서 회판의 직위에 있었다.

청일전쟁 이후 마건충은 통역원을 설립하여 양무인재를 육성하고 지식인의 견문을 늘려야 한다고 제의했다. 광서 22년(1896) 이홍장의 특사단에 참여하

13) 『天津條約』 倘日後另有別國與中國不和, 中國應禁阻不和之國不准來各口交易, 其大合眾國人自往別國貿易, 或販逢其國之貨前來各口, 中國應認明大合眾旗號, 便准入港。

Collection @ chosun

여 모스크바에 갔으며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가하기도 했다. 광서 22년 7월 마건충과 그의 형 상백은 상해에 거주하면서 양계초와 이웃하여 지내게 되었다. 양계초는 마건충에 대해 매우 감탄하였으며 또한 그로부터 적지 않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라틴어를 매일 세 시간씩 배우기도 하였다.

마건충은 정치계를 떠난 후 교육을 진흥해서 인민을 육성하기 위해 영문문법을 중문에 원용하여『馬氏文通』을 지었다. 그 책은 광서 22년에 탈고했으며 광서 24년에 간행되었다. 광서 26년 8월 당시 양광총독을 겸임한 이홍장이 동남 지역 보호 문제로 상해에 오게 되었는데 마건충은 그의 숙소에서 러시아의 전보문 칠천여자를 번역하던 중에 과로로 인해 14일간 병석에 있다가 상해의 숙소에서 운명하였다.

Ⅲ. 마건충의 균세외교이론

1. 균세론

서구에 있어 balance of power즉 세력균형이라는 개념은 현실 국제관계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되어 온 의미가 다소 다의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 체제 내 국가들 간의 국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을 지칭하기도 하고 체제의 안정 그 자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체제를 서술할 때나 외교정책을 서술할 때 체제 내의 특정한 국력분포 그 자체를 서술할 때에도 사용된다. [14]Haas는 세력균형이라는 의미가 최소한 여덟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즉 세력균형이란 국력의 분포형태, 균형 또는 균형과정 패권 또는 패권의 추구, 국가들 간의 제휴에 있어서의 안정과 평화 불안정과 전쟁 힘의 정치(Power politics) 역사의 일반화된 법칙 체제 그 자체와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가이드 등의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15]

14) 박광희,「21세기의 세계질서-변혁시대의 적응논리-」(서울: 오름, 2003), 13면.

Collection @ chosun

Claude는 세력균형이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분류하였는데 첫째는 실제의 묘사로서의 세력균형(bnce of power as description) 즉 상황(situation)으로서의 세력균형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한 시점에서의 균형이든 아니든 어떠한 힘의 배분상태를 묘사하는 용어로 쓰이는 경우이다. 때로는 국가들 혹은 국가 집단 간의 권력 관계가 개략적으로 또는 정확하게 동등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을 지칭하기도 하고 때로는 견제세력 간에 권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는 정책으로서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as a policy)이다.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으로서의 세력균형은 보통 다음의 세 가지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혹은 국가 연합간의 동등한 권력 배분을 조성하는 정책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많은 정치가에게 세력균형은 그들에게 유리한 균형을 조성하는 정책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는 통계적인 경향으로서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as a statistical tendency)이다. 이는 세력균형을 역사의 기본적인 법칙 혹은 통계학적인 경형으로 인식하는 경우로서 어떠한 국가고 간에 패권을 추구할 경우 적대적인 연합의 형성을 야기한다는 의미이다.

19세기 중·후기 세계열강들은 새로이 재편되는 세계체제의 한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들과 치열하게 경쟁하였고 대내적으로는 보다 효과적인 경쟁을 위해 국가체제를 정비하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당시 청은 급속한 세계체제로의 편입과정에서 청에 대한 열강의 독점적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노력들은 균세론의 적극 수용과 실제정책의 활용으로 표출되었다.

2. 균세외교이교이론의 제기

15) Ernest B. Haas, "The Balance of Power: Prescription, Concept or Propaganda?", World Politics, Vol. 5, No. 4(July 1953), P,442~477; 박광희, 전게서, 11면에서 재인용.

Collection @ chosun

균세이론은 서방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준 유구한 전통이념으로, 일찍이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서양 국제관계 및 대외정책에 심원한 영향을 끼쳤다. 이른바 均勢는 국제관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맹의 변환 혹은 기타 특수한 수단을 취하여 실현된 국제 혹은 지역 범위내의 국가와 국가 간의 세력상의 대체적인 균형을 뜻한다. 그 이론의 핵심은 무력수단을 쓰지 않고 국제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며, 공동으로 안정을 보호 유지하며, 전쟁의 방지하는 것이었다.

균세이론의 첫 출현은 고대 그리스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데이비드 흄의『關於均勢』에 의하면 균세는 당시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쟁패관계를 처리하는 주요 수단과 정책이었고, 이후 점차 "국제관계 속의 고전이론"이 되었다. 17세기 후반, 균세개념은 빈번하게 구주 각국의 저작과 정부문건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1773년 에스파냐 왕위계승전쟁 후에 체결된『위트레흐트조약』에서는, 우선 "均勢"를 정식조약문건에 기록했으며, 명확하게 이를 천명하고 있다.[16]

위트레흐트 조약은 교묘하게 유럽대국 간의 실력을 균형 있게 하고, 유럽대륙의 균세를 유지했다. 18·19세기는 균세이론의 황금기로, 영, 독, 러, 프 등 서구열강의 쟁패과정 속에서 모두 균세를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1815년의 비엔나회의, 1856년의 파리조약, 1878년의 베를린회의 및 1913년의 이집트전쟁이 끝났을 때, 균세원칙은 국제관계를 조정하는 지도원칙이 되었으며, 일찍이 세계근대사상 네 차례의 균세 체제 즉 베스타펠렌 체제, 비엔나 체제, 베르사이유 체제, 얄타 체제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후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균세이론은 서방국가에서 "국제사회속의 국가관계를 지배하는 자연법칙"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아편전쟁 이후 국제외교업무에 참여하게 된 청조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균세관념이 중국에서 등장하게 된 것에는 특정한 역사배경과 시대상이 내

---

16) 『國際條約集』(1648-1871年), 世界知識出版社1984年出版, 第111頁。
關於西班牙和法國之間過於密切的關系帶來了巨大的危險, 威脅全歐洲的自由和安全; 並且爲了完全消除人們心中對這種聯系的不安和疑慮, 以及通過力量均衡建立基督教世界和平和安寧(這種均衡是相互友好和各方持久和諧的最好和最牢固的基礎);天主教國王和最信仰基督的國王一致同意, 應采取充分的預防措施, 使西班牙王國和法蘭西王國永遠不得聯合在一起並置於同一主教管轄之下, 同一個人永遠不得成爲兩個王國的國王。

Collection @ chosun

포되어 있다. 당시 列强環伺, 國弱民窮, 面臨瓜分한 최악의 조건 아래서 일부 청 정부의 외교담당 관원들이 원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주된 정치사상이 되어 있었다. 그 주요내용은 조약체제 하에서 서방의 주권과 국제법에 관한 개념을 적절히 운영하며, 조약 체제와 서방열강 간의 모순을 이용하여, 대외교섭활동을 주선하고, 최대한도로 청조의 국가안전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균세관념은 중국에 등장한 이후 그 영향이 점차 계속 심화되고 있다.

서방국가외교에 대한 지식 및 근대 외교관념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심화됨에 따라 19세기 지식인들의 국제관계론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유럽열강 간에 유행한 균세이론이었다. 당시 중국은 시국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 이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균세이론을 언급한 사람은 왕도이다(1871년).[17] 마건충은 1878년에 균세이론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논술하였다. 아울러 그 형성배경과 사상연원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마건충은 1876년부터 1879년까지 프랑스에 유학한 기간에 프랑스 공사 곽숭도의 통역을 겸임했으며, 매우 많은 대외교섭사무에 참여한 바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서방국가의 풍속정정, 국제관계에 대해 비교적 많은 이해를 하였다.[18]

마건충의 균세이념은 18세기 유럽의 프랑스,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영국과 러시아 5강의 연합관계 및 비엔나 회의 이래의 유럽 정세를 기초로 하였으며, 그는 오로지 국가의 상호작용과 권리의 분산체제에 중점을 두었다 당시 유럽에는 결코 하나의 초월적인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상호 대립의 결과는 항상 국력 차이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러 국가는 타국의 위협을 좌시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의 자원에만 의존하여 군사역량 확대에 전폭적으로 투자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자

---

17) 王韜, 『普法戰紀・前序』, 同治十二年香港中華印務總局, 第3-4頁。
當今之時, 處今之勢, 普當持歐洲不變之局, 與諸國相安於無事。然後可以長握其權, 恒蒙其益, 其道當奈何?曰收奧以爲輔, 合英以自固, 進可以拒敵, 退可以保邦。聯弱小以制強大, 均勢力以靖兵戎。無創遠交近攻之謀, 無貪拓土開疆之利。猶要者, 則在親俄防俄, 而勿使之東, 如是歐洲可以長享太平, 而普亦恒得其強矣。

18) 馬建忠, 『適可齋紀言』卷二, 光緒二十二年刻本, 第10-11頁。
夫均勢之說, 創於範斯法尼之會, 然而與會者不過法、奧、瑞典、西班牙既日爾曼之屬。而普因北教而屛, 英以異教而斥, 故其相維之勢足以聯絡數國, 不足以統屬歐洲也, 迂特來之會, 英人先與法王盟, 複與他國王分盟。然則是二會者, 只屬數國之私盟, 而非列邦之公約。夫會者所以結同盟之信, 盟之者眾, 則信益彰, 而守愈篤。今此二會, 散漫無紀, 不能共同維持, 宜其不久而各國 髦之也。維也納之會, 則不然, 俄國與約而均勢之道公, 友邦共盟而要結之誼固。

Collection @ chosun

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단 하나의 국가가 초월적인 역량을 가지고 타국을 압박하면, 필연적으로 그 나머지 국가의 동맹을 촉진시켜서 그 강대국에 대항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마건충이 제창한 균세 이론은, 중국에서 말한다면 일종의 신 개념이지만 중국에서는 일찍이 춘추전국 이래로 以夷制夷의 책략을 주요 대외정책으로 취한 전통이 있었다. 마건충은 당시 국제관계속의 서방식 균세이론을 춘추전국기의 이념에 대비 검증하기도 하였다. 마건충의 균세이념은 국가실력 및 정치운동을 건립한다는 기초 위에서, 국가이익을 출발점으로 하고, 전통적인 도덕 외교를 포기하였다. 그는 특히 영국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되면 친구로 삼고, 이익 얻을 것이 없게 되면 적으로 삼는다.(利在則友, 利亡則寇)"는 철저한 실리주의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天朝觀은 근대의 절대적 강권 국가가 약소국가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중국은 이미 천조가 아니었으며 서강열강도 전통적인 利敵으로 비유될 수 없는 것이었다. 양무학파가 굳게 믿었던 국제법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의거하여, 마건충은 유보적인 태도를 가졌다. 한편 국제법은 아직 정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매우 많았고, 각파의 학설은 거의 같지 않았다. 사실 국제법은 강국이 교섭할 때 사사로운 이익을 찾는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19]

국제관계에서 균세의 유지는 강국간의 상호제어에 달려 있다. 여러 소국은 오직 강국 사이에서 국가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선한다. 중국은 균세의 이론을 통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마건충은 상해에서 성장하며, 직접 서방열강의 강성함을 보았다. 프랑스에 유학하여 유럽의 진보가 실로 중국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일찍이 오스만투르크를 예로 들어 경쟁력 상승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20]

---

19)「巴黎複友人書」, 鄭大華點校:『采西學議--馮桂芬、馬建忠集』, 沈陽, 遼寧人民出版社社, 1994年版, 第164頁。

20)「巴黎複友人書」, 鄭大華點校:『采西學議--馮桂芬、馬建忠集』, 沈陽, 遼寧人民出版社社, 1994年版, 第167頁。
嗟夫, 當回人之滅東羅馬也, 開疆展土, 歐亞爲之重足而立, 所來使臣, 動加鞭笞, 而莫敢誰何。今則時窮勢迫, 國內之政教財賦反爲外人牽制。民貧國弱, 僻守一隅, 幾於國不其國者, 何也?處巨變之時, 不因時而與之俱變, 內無定向而知變之士窮, 外無友邦而應變之方少, 徒守此千百年前瑪奧買(默罕穆德Mohanmed)所著『高朗』(『可蘭經Koran』)一書, 欲以應夫千百年後世道之變, 無惑乎日就

Collection @ chosun

유럽은 산업혁명 제2기에 진입하였고 그 진보는 신속하여 중국학습의 목표가 되었다. 마건충은 중국과 열국의 교류의 중요성은 국교의 유지와 외교의 활성화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유럽 각 방면에 침투하여, 그 진보의 동향이 어떠한지 알아야한다고 하였다. 그는 사절로 보낸 인재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여 국가의 중임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21] 국제정치 무대에서 경쟁하려면 경쟁과 합작이 서로 혼합되어야 하는데, 양무운동이 발전한 시기에 이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특히 20세기 초에 중국은 진실로 서방열강과 경쟁할 실력이 없으니, 중국의 능력을 육성하려면 오직 열강과 합작해야 하며, 그 장점을 학습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건충이 제시한 균세이념은 결코 중국이 균세속의 군비경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국제간의 균세환경을 타고, 국가의 발전에 힘을 다해야 하며, 설령 중국이 선진국가의 반열에 도달했다고 해도, 중국은 그대로 황제주의의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국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군비 확충에 노력해야 하고, 또한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동맹에 참가해야 한다. 또한 국제균세의 상황이 위협 받는다면, 최종적으로 전쟁을 야기 시킬 것이며, 전후에는 필연적으로 화의가 이루어지고 다시 국제질서를 안배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균세는 타파될 것이며, 또 전쟁이 일어나는 순환이 이어질 것이다.[22] 마건충은 이러한 악성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가 건설을 잠깐 중단하고, 외교수단으로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 국가가 평화로운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23] 이것이 바로 그가 연방 형태의 교류를 제시한 이유이다.

削亡, 徒爲天下後世多一泥古不通今之龜監, 可不惜哉?今夫應時達變之才識, 系乎用, 難責人以必有;而相時制變之實學, 關乎理, 亦力學之可求。然專論夫理者, 遇事沒倉皇而失措;泛求用者, 臨時轉窒疑而鮮通, 是必理用之兼備, 庶可泛應而曲當。

21)「巴黎複友人書」, 鄭大華點校:『采西學議--馮桂芬、馬建忠集』, 沈陽, 遼寧人民出版社社, 1994年版, 第165-166頁。

先皆久遊列國, 或充公使之選, 或爲遊覽之娛, 一旦身入機府, 他國之民情俗尚, 了如指掌。複得出使之臣時傳消息, 雖千裏如一室矣。己亦不易知也, 知我之所長, 猶宜知我之所短。知我之所長, 故掩之以待時而發;知我之所短, 故彰之可因舊而更。

22)「巴黎複友人書」, 鄭大華點校:『采西學議--馮桂芬、馬建忠集』, 沈陽, 遼寧人民出版社社, 1994年版, 第164頁。

夫處今之世, 輪舟鐵道, 梭織環中, 而欲自固一隅, 禁絕外人往來, 勢必不能, 不若因其利而利之, 以廣我之利源推行盡善, 國富民殷, 立約修和, 而內外平睦, 四境無雞犬之警, 萬國消鋒鏑之夏, 誰謂交涉之學小補也哉。

Collection @ chosun

Ⅳ. 중국근대 외교와 마건충의 역할

1. 마건충의 균세외교 응용

마건충은 가장 먼저 국외에서 근대 국제공법과 외교이론을 공부한 인재로, 王韜, 薛福成, 鄭觀應 등과는 달리 이론을 발휘하는데 모두 정합된 방식으로 실제 운동 속에 실현되기를 기대하였다. 그가 추진한 사항은 모두 서방의 새로운 정경이념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중국인의 관념을 새로 건설하고 개혁하고자 하였다. 특히 외교영역에 있어서 그는 당시 최전방에서 활동하였다. 그의 외교연설은 대담하고, 예민하며, 깊은 애국의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의 외교사상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몇 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개방 동맹을 주장함

유럽에서의 학습과 경력은 마건충으로 하여금 충분히 외교로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주권의 독립을 지키며, 영토의 안정, 국권의 신장, 국력을 증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에 이르지는 않은 가운데 그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복잡한 국제형세에 처하여 정확한 외교방침을 사용했으며, 원활한 외교수단을 통해 열강 사이에서 효율적 외교를 펼치기도 하였다. 새로운 국제사회 속에서 하나의 평등하고 독립된 지위를 얻었으며 개방을 위한 활동을 주도했다. 개방된 후에는 바로 국제연맹 체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4] 또한 마건충은 국제연맹 체제가

---

23)「巴黎複友人書」, 鄭大華點校:『采西學議--馮桂芬、馬建忠集』, 沈陽, 遼寧人民出版社社, 1994年版, 第164頁。
夫處今之世, 輪舟鐵道, 梭織環中, 而欲自固一隅, 禁絶外人往來, 勢必不能, 不若因其利而利之, 以廣我之利源推行盡善, 國富民殷, 立約修和, 而內外平睦, 四境無雞犬之警, 萬國消鋒鏑之夏, 誰謂交涉之學小補也哉。

24)「巴黎複友人書」, 鄭大華點校:『采西學議--馮桂芬、馬建忠集』, 沈陽, 遼寧人民出版社社, 1994年版, 166頁。
"天下事眾擎則易舉, 孤掌則難鳴, 理之常也。夫同宅寰中, 此疆彼界而建爲國, ""憂危與共, 戰守

Collection @ chosun

확립되기 위해서는 가입하는 국가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국근대의 지식인들은 모두 국교를 여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분분히 국제연맹에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설복성은 미국과의 연대를 주장했으며, 왕도는 영국과의 연대를, 증기택은 일본과의 연대를 주장했다. 마건충은 근대외교의 실천은 오직 唯利是圖, 弱肉强食에 있다고 인식했다.[25]

2) 국제공법의 이용, 불평등한 조약의 개정

국제법은 점차 선진의 중국 지식인에게 수용되어 갔다. 또한 국제법은 국가주권을 보호하고, 외래의 침략을 억제하는 중요한 이론무기가 되었다. 마건충은 프랑스 파리정치학원에서 일찍이 전문적으로 서방 외교 분야의 과정을 학습했으며, 공법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쌓은 바가 있었다.

그는「巴黎複友人書」에서 공법의 탄생과 발전의 역사를 상세하게 논술하였다. 국제법의 번역과 전파는, 쇠미해지고 있던 중국의 현실에서 마건충과 같은 지식인들에게 광범위하고 심원한 영향을 끼쳤다. 국가주권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근대 국제법의 기본원칙이었다. 근대의 모든 공법체계에 의하면 모든 국가는 하나의 정치실체로서 법률상 최고의 의지를 갖는 것이었다.[26] 모든 국가는 한 국가가 그 영역 내에서 발휘하는 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국제 공법적인 국가주권 원칙은 자본주의의 자유경쟁과 민주평등사상의 국제관계속에서 체현되어진다. 어떠한 하나의 민족, 국가도 모두 자신의 주권을 유지하고, 침범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국제공법에 의거하여, 마건충은 열강이 중국에 강요한 일련의 조약에 내재된 불평등성과 침략성을 폭로하고 비판했으며, 이들 조약이 중국에 미치는 엄중한 위해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27]

相援, 而勢乃不孤。"

25)「巴黎複友人書」, 鄭大華點校:『采西學議--馮桂芬、馬建忠集』, 沈陽, 遼寧人民出版社社, 1994年版, 166-167頁。

利在則友, 利亡則寇", 所以特別強調說"列國安危所系, 莫大於邦交, 第交不可無, 而擇亦宜慎。"

26)『奧本海國際法』, 勞特派特修訂, 北京商務印書館1989年版, 第113頁。

它要求對它的尊嚴、獨立的保持, 領土和屬人優越權給予一定的尊重。

27) 「擬設翻譯書院議」, 『適可齋記言』卷四, 224頁。

"竊謂今之中國, 其見欺於外人也, 甚矣!道光季年以來, 彼與我立約款稅則, 則以向欺東方諸國者, 轉而欺我。於是其公使傲昵於京師, 以淩我政府;其領事強梁於口岸, 以抗我官長, 其諸色教士散布與腹地, 以惑我子民, "

dCollection @ chosun

1844년의『中美望廈條約』은 가장 먼저 조약의 수정을 제기했는데, 그 제34조 규정은 매 12년마다 1번 개정하는 것이었다. 조약의 수정은 본래 쌍방이 공유한 권리지만, 줄곧 열강이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침략을 요구하는 위협적인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청 정부는 조약의 수정에 대해 증오가 극에 달했지만, 오직 이를 피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만 걱정했다. 마건충은 국제공법을 인용하면서, 피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조약의 개정을 주도하여 열강의 침략 야망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맹목적인 전쟁에 반대하고 균세외교를 주장함

열강의 기세등등한 공세에 직면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국가의 운명을 헤쳐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외교사상가가 직면한 문제였다. 마건충은 위축되고 굴복하면서 전쟁을 회피하고 중요한 轉機를 놓치는 것에 반대했으며, 또한 맹목적으로 전쟁하고, 맹랑하게 일을 지어내는 것도 반대했다.

그는 전쟁과 화의 문제는 국가의 대외정책상 중대한 선택문제에 관계된다고 생각했다. 만약 객관적인 조건의 규약을 살피지 않고, 책략과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전쟁을 구하는 것은, 비록 일시의 분을 씻을 수 있지만 끝내 아무런 도움도 안 되며, 심지어 국가민족에게 더욱 큰 재난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당시 단지 일시의 의기로 우쭐대는 사대부들이 근본적으로 세계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放言高論, 虛驕盲戰의 분위기를 매우 불만스러워했다. 敵强我弱의 구조를 일시에 고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력 · 물력 · 군력 · 국력의 한계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저 전쟁을 구하는 것은, 사회에 아첨하기 위해 제기하는 실상과 맞지 않는 애국구호일 뿐이고 사실상 근대의 성숙한 민족의 이지적인 심리상태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 마건충에 의하면 화의는 일종의 수단이며, 이를 통해 역량을 축적하고, 내정을 혁신하며, 외국의 모욕을 막아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그는 역량을 준비하면 더욱 전쟁을 잘할 수 있으며,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마건충의 '和'는 '戰'을 전제로 한 것이며, 타협, 양보, 투항, 매국과는 본질적으로는 구별되는 것이다.

마건충은 근대역사에 대한 총결산을 통해 외교와 내정은 相補相成하고, 相

dCollection @ chosun

互表裏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중국의 외교정책상의 무능으로 인해 전쟁참패와 국치가 온 것이었다. 외국인과의 접촉과 교섭은 모두 치욕과 비천한 행동으로 간주되어졌다. 설령 조정의 명을 받들고, 외교업무를 주관한다 하더라도, 매국노로 경시되는 재난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른바 正途 출신은 모두 이것을 하찮게 여겼다. 마건충은 이러한 사대부를 가련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며, 여타 국가의 진보에서 본보기를 삼거나, 혹은 불리한 국제형식을 바꾸어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탄력 있는 건전한 외교 활동을 통하여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무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마건충은 또한 외교상의 득실은 국력의 강약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강대한 정치, 경제, 군사실력이 없으면, 외교활동은 지지기반을 잃게 되고, 국위를 드날릴 수 없게 되며, 국제교류에서 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 중국은 균세를 생존원리로 하고, 실력을 강구하며, 약육강식의 상황에서 自强의 개혁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마건충이 主和를 주장한 목적은 내정개혁을 이루고, 평화롭고 유리한 국제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떻게 내정을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 마건충과 이홍장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홍장 등의 양무파는 치국의 도는 自强에 있으며, 자강은 練兵을 핵심으로 하며, 練兵은 製器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홍장 등 양무파의 세계 인식은 시종일관 총체감이 결핍되었으며, 비교적 모호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양무파의 개혁사상은 시종일관 일종의 단편적인 군사개혁을 핵심으로 한 富國兵强國論으로, 그 사상은 본래 하부의 튼튼한 구조가 형성되지 않아서 내재적 동력이 결핍되어 있었다.

마건충은 오히려 줄곧 세계가 일체화되는 추세라는 점에 착안하여 어떻게 해야 중국을 강대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 아니라, 중국은 단지 세계와 일체가 되어야 강대해 질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마건충의 변법자강사상은 시종 일종의 내재적인 확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며, 경제로부터 정치와 군사 방면으로 점점 심화 확장되는 길을 모색한 것이었다.[28]

---

28) 馬建忠 「上李伯相言出工課書」, 『適可齋記言』卷二, 159頁。
講富者以護商爲本, 則蓋藏自足;得民心則忠愛倍切, 而敵愾可期。他如學校建而智士日多, 議院立而下情可達。其制造, 軍旅, 水師諸大端皆末者也。

Collection @ chosun

그는 서방에서 연병제기기술을 배워야 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상업을 보호하고, 의회를 설립하며, 자유로운 경제, 정치제도가 되게 해야 하며, 이를 부단히 더욱 보완 발전시키며 구체화 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마건충은 비록 중국의 봉건전제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았지만, 서방의 삼권분립을 자못 부러워하였다.

마건충의 내정 개혁 사상은 평화로운 국제 환경에서 자본주의의 길로 나아가 국가의 독립과 부강을 실현하자는 것으로,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된 사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2. 외교인재의 육성, 선발

서방국가에서는 대체로 운영구조를 갖추고 건전한 외교업무를 이행하게 된 것이 근대외교의 시작이라고 본다. 제도분야에는 외교사무를 주관하는 중앙관서의 설립, 외교 체계의 전문화, 상임외교사절의 파견, 외국대사관의 설립, 외교인재의 양성이 포함된다. 마건충은 이 가운데에서, 청 말기의 전문적인 외교인재의 육성 방안을 제출한 첫 인물이기도 하다.

마건충은 총리아문 관원의 사무가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엄격한 의미상 외교상의 모든 상업, 세무, 실업, 공정, 교육, 사법, 교무, 국방, 전교 등에서 모두 서양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외교 업무상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총리대신의 사상은 대부분 완고하게 옛 것을 답습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요직에 있으면서 외교상식은 완전히 결핍되어 있으며, 외국의 지식들을 학습하지 않고 심지어 일년 내내 한 번도 衙門에 가보지 않아도 고귀한 신분이니 번번이 서양인에게 사기당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29] 따라서 그는 외교 인재를 엄격하게 선발하고 심혈을 기울여 육성해야 할 것을 강

29) 馬建忠 「瑪賽複友人書」, 『適可齋記言』卷二, 174-175頁。
參贊, 隨員等名目不過爲調劑私交之具, 而非襄理公事之才。""如必考求實學, 則當讀其方言, 舌音初調, 而瓜期已屆, 依然吳下阿蒙。問所謂洋務者, 不過記一中西之水程, 與夫婦女之袒臂露胸之不雅觀之事;即稍知大體者, 亦不過曰, 西洋政治大都重利以爲信。究其所以重利, 尚信之故, 亦但拉雜瑣事以爲證;而於其本源之地, 茫乎未有所聞也。

Collection @ chosun

조하였다. 그래서 그는 正規出使學堂을 설립하여 “達變應時, 理用兼備”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식견을 갖춘 전문적인 외교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 선발과 학습에 대해 사서오경을 어느 정도 습득한 연령 15~20세의 뛰어난 자제를 매년 10인 선발하고, 삼년을 기한으로 교육하는데, 첫째 해에는 프랑스어와 라틴어를 배우고, 둘째 해에는 文義, 셋째 해에는 詞狀을 배우게 한다고 하였다. 특히 마건충은 교수과정에서 마땅히 언어에 국한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반드시 외국역사를 가르쳐야 하고, “度數之學, 格致之功” 및 “華文史鑒”을 아울러 학습하도록 하여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매년 한 차례 시험보아 그 성적을 참고하고, 삼년 후에 종합시험을 보아서 우수한 자를 채용하는데, 채용한 자는 일 년을 시험삼아 써서, 합격되면 파리사서학관으로 보내어 계속 2년간 공법, 율례, 조약, 理財, 賦稅 및 각국의 왕래하는 공문을 배우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30]

마건충의 정규출사학당 건립 건의와 그 이후 제의한 번역서원의 건립 주장은 모두 근대외교와 번역의 전문적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기한 일련의 비교적 적합하고 실행할 만한 방안이었으며, 근대중국에서 실로 최초의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청정부의 재정이 당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건충은 그의 건의가 경비문제로 인해 장기간 보류될까봐 매우 걱정하였다. 그래서 두 곳 학당의 비용 마련책을 건의하기도 하였지만 애석하게도 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그의 독창적인 選材, 育材, 用材의 삼위일체 인재 등용책은 우수한 사람을 선택하여 채용하고,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게 해서 국내와 국외에서 아울러 양성한다는 교육방법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참고하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도 외교 방면에 크게 낙후되어 있었던 중국의 현실에서 선진 외교의 정책을 구상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한 그의 업적은 근대 중국 외교사상 선구자로서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30) 馬建忠:「瑪賽複友人書」, 『適可齋記言』卷二, 176頁。
三年文字, 約以學規以閑其心志, 一年試用, 寬其約束以觀其自守。且三年文字之後, 複令閑養一年, 使凡年少氣盛, 狂傲不羈之習, 借使館之差委以消磨變化之;而後二年之功, 專習西學, 寬立期限, 嚴督課程;得以虛心下氣, 成就可造之品, 而免濫用之弊。

Collection @ chosun

Ⅴ. 맺음말

마건충의 선구적인 외교 정책안은 청정부의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함과 전통을 고수하는 완고함, 외세에 대한 타협적 자세로 인해, 대부분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활동과 역할이 근대 외교사상에서 갖는 역사적 의의를 간과할 수 없다. 마건충의 여러 노력은 청 조정의 합당한 지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청 조정은 관련 있는 외교정책과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할 때, 이 국제 공법에 정통한 외교인재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마건충은 당시의 실권자였던 이홍장에 의해 중용되었으며, 그의 외교 분야에서의 노력과 실천은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이익을 보호했다.

마건충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국외에서 근대공법과 외교이론을 공부한 인재이다. 그가 추진한 개혁안에는 서방의 새로운 정치, 경제 이론이 바탕하고 있다. 그는 중국인의 대외 관념이 변화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균세외교이념을 구체적으로 그 시행을 제안하였다. 이리하여 전면적인 대외개방, 국제연맹에의 참여, 국제공법의 이용, 불평등 조약의 수정, 맹목적인 전쟁의 반대, 균세외교를 주장하고, 외교인재를 선발하여 신식교육으로 육성할 것을 주창하였다.

마건충은 비록 이홍장의 사상과 노선이 봉건통치를 옹호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막하에 들어가 봉직했다. 그러나 그 기간에 그가 수행한 몇 차례 외교 활동 속에서 그의 개혁적인 자세를 알 수 있다. 남양에 가서 아편문제를 처리하였고, 조선과 미국의 통상조약 체결, 招商局 산업의 抵當 등의 문제처리 등이 바로 그러한 사례들이다. 마건충의 선진 외교이념과 전통적인 봉건사상의 공존은 서로 모순된 것이지만, 당시 변혁기의 청말 중국 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서양의 외교 정책을 학습했었던, 19세기 중·후반의 외교 관리였던 마건충의 외교사상과 그 활동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가치가 있다. 우선 그가 제기한 균세외교이념은 근대중국에 중대한 영향을 준 바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외교 근대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의 사상과 활동은 수천 년간 중화주의에 머물렀으며, 폐쇄적이었던 중국의 외교이념을 국

Collection @ chosun

제사회 내지 국제연맹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하게 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하였고, 그 중요성을 크게 주지시켰다.

특히 正規出仕學堂을 건립하자는 건의와 飜譯書院을 건립하자는 주장 등은 모두 근대외교와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인재의 체계적인 훈련을 위한 비교적 적절하고 실행할만한 방안들이었다. 이것은 근대중국에 있어서 실로 획기적인 의견에 속한다. 그는 독창적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하고, 등용하는 삼위일체의 인재 등용관과, 우수한 사람을 선택하여 채용하며, 이치와 실용을 겸비하고, 국내와 국외의 교육이 서로 결합되는 양성방법을 제기한 것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참고할만한 의의가 있다.

Collection @ chosun

參考文獻

<1차 史料>

馮桂芬，馬建忠著，鄭大華點校，『采西學議--馮桂芬，馬建忠集』，沈陽:遼寧人民出版社，1994。

馬建忠，『適可齋記言記行』，中華書局，1960。

「巴黎複友人書」，

「覆李伯相箚議中外交涉儀式洋貨入內地免厘稟」，

「上李伯相覆議何學士(如璋)奏設水師書」，

「富民說」，

「擬設翻譯書院議」，

「馬氏文通」，

「瑪賽複友人書」，

「鐵道論」，

「借債以開鐵道說」，

「南行記」

梁啓超，『適可齋記言記行序』，中華書局，1960。

李鴻章，『李文忠公朋僚函稿』卷6。

馮桂芬，『校分廬抗議』卷2。

鄭觀應，『鄭觀應集』，『易言・論公法』。

鄭觀應，『盛世危言』卷4。

王韜，『普法戰紀・前序』，同治十二年香港中華印務總局。

薛福成，『庸庵文集』卷1，光緒二十三年上海醉六堂印。

魏源，『海國圖志』卷2，

『中日戰爭』第2冊。

王炳燮，『勿自欺室文集』卷7

『鴉片戰爭檔案史料』第一冊

Collection @ chosun

『淸代籌辦洋務始末・道光朝』卷21，卷24
『淸代籌辦洋務始末・咸豐朝』卷7，卷22
郭廷以，『淸季中日韓關系史料』，台北:中硏院近代史硏究所，1972。
鍾叔河主編，郭嵩濤，『倫敦與巴黎日記』，長沙，嶽麓書院，1984。
『國際條約集』(1648-1871年)，世界知識出版社，1984。
王鐵崖編，『中外舊約章彙編』，上海三聯書店，1957。
聶寶璋編，『中國近代航運史資料』，上海人民出版社，1985。

<저서>

倪世雄，『當代西方國際關系理論』，複旦大學出版社，2001。
方豪，『中國天主敎史人物傳』(下)，北京中華書局，1973。
唐小軒主編，『李鴻章全集』，長春時代文藝出版社，1998。
顧廷龍，葉亞廉主編: 『李鴻章全集』(電稿一)，上海人民出版社，1985。
中國曆史硏究社編，『東行三錄』，上海，上海書店，1982。
許複，『馬建忠編年事輯』序，『江蘇大學學報（高敎硏究版）』，1986。
郭廷以:『近代中國史事日志』，北京:中華書局，1987。
王如繪，『近代中日關系與朝鮮問題』，北京:人民出版社，1999。
夏良才，『近代中外關系史硏究槪覽』，天津敎育出版社，1991。
蔣廷 ，『近代中國外交史資料輯要』，(上海）商務印書館，1930。
薛玉琴， 『近代思想前驅者的悲劇角色：馬建忠硏究』， 『中國社會科學會』，2006。

<논문>

王德仁，「歐洲格局的四次變化」，『世界知識』，1992-24。
葉翔鳳，「中國晩淸外交機構近代化的起步」，『山西大學學報』，1994-3。
楊莉，「晩淸外交專門化趨勢硏究」，『武漢大學』，2004-5。
張富强，「李鴻章與淸末遣使駐外」，『廣東社會科學』，1991-2。

Collection @ chosun

聶敏熙, 「論馬建忠著『馬氏文通』」, 『四川大學學報(社科版)』, 1988-5。
高路, 「論清政府對外方略的改變」, 『華中師範大學學報』, 1998。
劉增合, 「1840--1894年晚清外交觀念的轉變」, 『社會科學戰線』, 1998-2。
周棉,吳漢全, 「留學生與晚清社會的變遷」,『徐州師範大學學報 (哲社版) 』, 2003-1。
李喜所, 「中國留學生研究的曆史考察」, 『文史哲』, 2005-4。
王春娟, 「晚清3次變革與現代化思想的變遷-從中體西用思想的發展變化觀之」, 『世紀橋』, 2003-4。
周棉, 「留學運動的性質及意義」, 『徐州師範大學學報(哲社版)』, 2003-1。
任靜吾, 「馬建忠在『適可齋記言』裏所表現的思想」『光明日報』, 1953-11。
湯照年, 「試論馬建忠的經濟思想」, 『文彙報』, 1962-7。
郭漢民, 「晚清社會與晚清思潮」, 『中南大學學報(社科版)』, 2004-1。
薛玉琴, 「馬建忠對近代西方外交理念的接受與運用」, 『淮陽師範學院學報』, 2003-5。
許有成, 「馬建忠生平及其思想初探」,『 複旦學報』, 1985-6。
楊炳延, 「論馬建忠」, 『開封師範學報』, 1964-1。
陳宗海, 「强國之道的探索者--馬建忠」, 『光明日報』, 1983-10。
黃清根, 「再談馬建忠的富民思想」, 『文彙報』, 1984-11。
林承節, 「馬建忠, 吳廣霈的印度之行和他們的南行日記」, 『南亞研究』, 1985-2。
陳雙燕, 「經世致用與中國近代外交觀念的産生」, 學術月刊2000-1。
蔡永明, 「論晚清洋務思想家的近代外交觀」, 複印報刊資料2001-3。
譚群玉, 「馬建忠的外交思想」, 清史研究, 1996-4。
譚群玉, 「馬建忠的外交活動」, 『中山大學學報論叢(哲社版)』, 2000-3。
胡赤軍, 「論馬建忠對外貿易和引進外資的思想」, 『求是學刊』, 1994-4。
李喜所, 「馬建忠與中西文化交流」, 『中州學刊』, 1987-4。
權赫秀, 「馬建忠留法史實辨誤二則」, 『江蘇社會科學』, 2004-1。
「馬相伯在朝鮮的顧問活動(1882年11月-1884年4月)」, 『近代史研究』, 2003-3。

Collection @ chosun

王平, 「馬建忠傳略」, 『江蘇地方志』, 1995-2。
劉立松, 「强國富商得民心——解讀西方富强之本的馬建忠」, 書屋2006-3。
石蕾, 「馬建忠維新思想研究」, 華東師範大學碩士, 2000-5。
劉岐梅, 「晚淸改良思想研究」, 曲阜師範大學碩士, 2001-4。
陳鳳, 「從天主敎徒到改良主義者」, 福建師範大學碩士, 2005-5。
王平, 「馬建忠傳略」, 『江蘇地方志』, 1995-2。
兪政, 「論馬建忠的經濟思想」, 『蘇州大學學報』, 1996-3。
賈熟村, 「李鴻章與馬建忠兄弟」, 『淸史研究』, 1997-3。
賈熟村, 「李鴻章與朝鮮」, 『安徽史學』, 1999-4。
許金芳:「幕僚與晚淸外交」, 『安徽史學』, 1997-2。
王如繪, 「試論馬建忠的海防思想」, 『東嶽論叢』, 2003-1。
石蕾, 「馬建忠的外交思想評述」, 『江蘇敎育學院學報(社科版)』, 2001-7。
蔣文野, 「馬建忠生平專辨二題」, 『鎭江師專學報』(社科版)』, 2001-1。

海外文獻

阪野正高, 『近代中國外交史研究』, 岩波書店, 1970。
川島眞, 『中國近代外交的形成』, 名古屋大學出版會, 2004。
植田捷雄, 『東洋外交史2』冊, 東大出版會1969年, 1974。
阪野正高, 『中國近代化與馬建忠』, 東大出版會, 1985。
辛勝夏, 「朝鮮의 門戶開放과 馬建忠의 역할」, 『亞細亞研究』82(漢城, 1989)。
張秀蓉, 「馬建忠的生平事跡與評價」, 台灣。
박광희, 「21세기의 세계질서-변혁시대의 적응논리-」(서울:오름.2003).

Collection @ chosun

Collection @ chosun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사학과	학 번	20057901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장원원 한문 :張 媛媛 영문 : ZHANG YUAN-YUAN				
주 소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 기숙사				
연락처	E-MAIL : longnv21@hotmail.com				
논문제목	한글 : 마건충의 균세론과 중국근대외교 영어 :Ma jian-zhong's Balance of Power Theory and China's Modern Diplomacy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O) 반대( )

2009년 08 월 일

저작자: 장 원 원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